

[종합]

정몽주 과거시험 답안지 첫 공개

도현철 연세대 교수

고려 말기의 충신 포은 정몽주(1337~1392)가 과거시험 때 제출한 답안지(사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연세대 사학과 도현철 교수는 정몽주의 대책문(對策文) 필사본을 일본 호사(蓬左) 문고에서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문이란 과거시험 때 제출한 답안을 말한다.

몽극이상국집을 쓴 이규보(1168~1241), 명 문장가로 원나라까지 이름을 떨친 최해(1287~1340) 등 고려 문인들의 대책문이 일부 발견된 적이 있지만 포은의 대책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 공민왕 9년에 시험을 치른 정몽주는 당시 빈번하게 국경



을 넘어오던 홍건적(紅巾賊) 대처법을 6쪽 분량으로 제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도 교수는 이 대책문에 “홍건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강태공이나 제갈량처럼 당시 문무 겸용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정몽주의 주장이 소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1년부터 디자인센터가 맡아 치른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했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2011년부터는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가 맡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센터는 4일 “최근 광주시와 디자인비엔날레 센터가 주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며, 빠르면 2011년 4회 대회부터 센터가 맡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창설된 디자인비엔날레는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각각 20

억원, 총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다. 같은 해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디자인센터가 행사를 주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행사를 대신 진행했다.

이 때문에 비엔날레재단은 격년으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해마다 번갈아 가며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 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머물렀고, 디자인센터도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

한편 오는 9월18일 열리는 제3회 광주비엔날레는 예전처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하며, 48일 동안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의외의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열린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F1 ‘성공 개최’ 예감

경주장 들어설 영암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

정부 건설비 지원 시사... 특별법도 국회 통과 눈앞

F1(포몰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J프로젝트 사업부지 가운데 F1경주장이 들어설 영암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신청되고 정부가 경주장 건설비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F1지원법도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지자체와 정부, 국회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5일,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사업부지 가운데 F1경주장 치러질 삼포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해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포지구는 J프로젝트 전체 8천792만㎡ 중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일대 430만㎡ 규모로, F1 경주장과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모두 4천여 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도는 삼포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 환경성 검토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끝난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부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F1대회 경주장 건설비를 국고로 지원할 의사를 비추며 F1대회 성공개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날 27일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경기특위)에서, 전남도가 경주장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을 요청한 880여 원 가운데 530여 원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길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저런 뽕(?)은 한국에서나...



5일 광주시 남구청에서 열린 쓰레기 자동화처리시스템 시운전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황일봉 남구청장(두번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남구청 제공>

광주시 남구 ‘생생하우스’ 시운전

이만의 환경장관 참석... 쓰레기자동화처리 시스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5일 광주시 남구가 개발한 생활쓰레기 자동화처리 시스템을 둘러본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 남구는 이날 이 장관과 환

경운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쓰레기 자동화처리시스템인 ‘생생하우스’를 시운전했다. 생생하우스는 재활용·일반·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현재의 부피 중심에서 무게

중심으로 개량한 것이다. 특히 남구는 생생하우스 보급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배출 무게에 따라 수입금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현재 시범 운영중인 생생하우스가 보급될 경우 연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드는 2억4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전국적으로는 49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희호기자 khh@

1,900여 전남 섬 “외국어 이름 지어 주세요”

전남지역 국도이름 확정 목표~나주 1호선 ‘영산로’ 목포~순천 2호선 ‘녹색로’

“1천964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섬을 가진 전남 다도해에 예쁜 외국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전남도는 5일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을 외국인에게 쉽게 알리고, 관광객과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도해의 영문 브랜드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 목표와 나주를 잇는 국도 1호선의 이름이 ‘영산로’로, 목포와 순천을 잇는 국도 2호선의 이름이 ‘녹색로’로 바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도 1, 2, 13호선에 대한 새 주소 도로이름을 공모한 결과 국도 1호선 목포~나주를 잇는 69km 구간을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의 이름을 딴 ‘영산로’로 확정했다. 또 국도 2호선 목포~순천 131km 구간은 ‘녹색로’로, 국도 13호선 강진~나주 42km 구간은 ‘예향로’로 결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행안내 14면게제, 결산공고 접수안내, 투자하실분모집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교육목표, 모집인원, 강의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육과정

제21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for account type, amount, and balance.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Table with columns for area, type, and details.